

다저스맨 김혜성... 도쿄서 데뷔전 땀까



3+2년 최대 324억에 입단... 오타니와 '한솔밥' 작년 서울 이어 올핸 도쿄서 빅리그 개막 2연전 시범 경기서 경쟁력 입증돼야 선발 출전 길 열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25)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는 3월18일과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2025 MLB 정규시즌 개막전 '도쿄시리즈' 시카고 컵스와 2연전을 치른다.

MLB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와 홍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리그 개막전을 열어왔다.

2024년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김하성(자유계약선수)의 전 소속 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다저스가 맞붙었다.

'서울시리즈' 흥행에 성공한 MLB는 올해도 아시아에서 개막전을 연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속한 다저스와 스텔스 세이아, 아마나가 쇼타의 소속 팀인 컵스의 개막 2연전을 도쿄에서 치르기로 했다.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주글렌데일의 캐럴백 랜치에서 열리는 다저스의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인 빅리그 생존 경쟁을 시작한다.

김혜성이 MLB 시범경기 초반부터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빅리그 로스터 26인에 포함돼 도쿄시리즈에서 이른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

다저스는 새 시즌에 유격수 무키 베츠, 2루수 개빈 렉스톤 키스톤 콤비를 꾸릴 예정으로, 김혜성은 현실적으로 백업 내야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오른손 투수 고우석(마이애미 말린스)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고우석은 동료들과 함께 서울행 전세를 뒀고 연습경기에도 출전했지만, 정작 다저스와 서울시리즈 개막 2연전 엔트리 예선 제외됐다.

고우석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곧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고우석의 사례를 비춰 보면, 도쿄시리즈는 김혜성의 팀 내 입지와 새 시즌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성은 지난해 한국 야구대표팀 소속으로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서울시리즈 연습경기에 출전했다.

당시 김혜성은 다저스 보비 밀러의 시속 157km 강속구를 공략해 우익수 방향 2루타를 터뜨리는 등 활약하며 MLB 스카우트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연습경기 파트너 1년 만에 김혜성은 이젠 정식 MLB 선수로 개막전 출전을 노린다.

한편 다저스의 시범 경기 개막전 상대도 컵스다. 다저스는 2월21일 캐럴백 랜치에서 컵스와 상대한다.

3월2일에 이징후의 소속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범경기를 펼친다.

다저스는 3월12일까지 시범경기를 하고 일본으로 출국한다. 도쿄시리즈를 치른 뒤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시범 경기 3연전을 벌인다.

미국 본토 개막전은 3월28일에 열린다. 다저스타디움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세계 1104위 정현 5년 5개월 만의 V

인니 퓨처스 테니스 단식 우승

정현(1104위·사진)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암만 미네랄 대회(총 상금 3만 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정현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자일스 핫세(421위·영국)를 2-0(6-1 6-2)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정현은 2019년 8월 남자프로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저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국제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정현은 이후 부상이 이어지며 내리막을 걸었다.

세계 랭킹도 2018년 19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000위 밖으로 밀린 상태다.

2023년 6월 뮌헨 예선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일본 퓨처스 대회로 복귀전을 치렀다.

성인 남자 테니스 최연소 우승자는 1970년 17살의 로베르트 슈툼페르(독일)였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 4대 메이저 대회와 ATP 투어, ATP 챌린저, ITF 퓨처스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

정현이 이번에 우승한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퓨처스에 해당한다.

ITF가 최근 '퓨처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회 총 상금 규모에 따라 월드투어 'M25'와 'M15' 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번 대회는 M25 등급으로 열렸다.

정현은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은 없고, 2017년 20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넥스트젠 파이널스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단식 기준으로 챌린저에서 9번 우승했으며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톰 시드(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美 매체 "김하성, 디트로이트-애틀랜타 가능성"

4일(한국시간)

내야수 김하성

(25)이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계약한 가운데 자유계약선수(FA)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야수 김하성(사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FA가 된 김하성의 다음 소속팀에 대해 미국 매체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다저스, 탬파베이 레이스, 밀워키 브루어스 등이 김하성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김하성에 대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행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김하성이 어깨를 수술해 FA 계약에 영향을 받았으나 김하성은 애틀랜타에 도움이 될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타율 0.233, 안타 94개, 11홈런, 47타점의 성적을 냈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는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디트로이트행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5시즌 트레이스 위니가 디트로이트의 주전 유격수를 맡을 가능성이 크며 김하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김혜성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하며, 김혜성을 40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다저스는 4일 오전(한국시간)에 "유틸리티 플레이어 김혜성과 3년 1250만 달러(약 184억 원), 2028년·2029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혜성이 지난해 4월 7일 끝내기 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golf.co.kr